

18. 분재와 사계절

변화하는 계절에 대한 느낌은 일본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19 세기 말까지 사용된 일본의 전통적인 역법에는 친숙한 ‘사계절’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72 개의 세세한 계절(72 절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절마다 조금씩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계절에 대한 의식은 수백 년에 걸쳐 폭넓은 전통과 일본 독자적인 문화, 예술로 나타났습니다. 분재라는 예술은 바로 이 전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재 장인은 계절의 변화나 한 해의 특정 시기(새해 등)와 관련된 작품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 계절에 잎을 떨어뜨리는 잡목과 초목(말 그대로 풀 같은 나무)을 이용합니다. 잡목 분재가 주는 인상이 계절과 함께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미야 분재 미술관의 컬렉션 갤러리는 체감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나 스와이프하면 인기 있는 종류의 나무들이 한 해 동안 어떤 다양한 모습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